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5호 [루게 제22957호] 주제99 (2010)년 1월 5일 (화요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한마음
한뜻으로 받들어나가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새해전투로 들끓고있는 재령광산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
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새해전투로
들끓고있는 재령광산을 현지
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기남동지, 조선로동당 중앙
위원회 부장들인 김경희동지,
장성택동지가 동행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현지에서 광산의 책임일군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새해벽두
에 자기들의 일터에 포다시
모시는 영광과 행복으로 하여
광부들의 가슴은 격정의 파도
로 설레이고있었다.

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
를 강성대국건설사에 특기할
대변혁의 해로 빛내이기 위해
장엄한 진군길에 펼쳐나선
재령광산의 로동계급은 정초
부터 생산과 건설에서 비약의
폭풍을 일으키고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도착
하시자 광산의 일군들과 광부
들은 새해전투를 몸소 진두
지휘하시며 련일 강령군을
단행하시는 아버지장군님께
가장 뜨거운 새해의 인사를
드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
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영접일군
들과 인사를 나누신 다음 광
산의 연혁소개실을 돌아보시였다.

재령광산은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여러차례의 현지지도를 받는
영광을 지닌 자랑많은 기업소이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손길아래 승리와 번영의 한길을 달려온
광산의 영광스러운 발전로정을 감회깊이
추억하시고 당과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온 광산의 광부들이
해방후 새 조국건설시기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장구한 기간 불타는 애국의 일념
을 안고 질 좋은 쇠물을 제철소들에 제때
에 보내줌으로써 나라의 경제발전
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하시면서 지난 기간
그들이 이룩한 성과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이어 쉬임없이
쏟아져내리는 흰눈을 맞으시며 증산의
불길 세 차게 타오르고있는 광구들을
돌아보시면서 기술장비상태와 생산정형
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광산의 로동계급은 지난해 3월 광산
에 찾아오시어 주신 아버지장군님의
현지말씀을 높이 받들고 생산정상화를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리고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현대적인 채굴설비들의 리용률
을 높임으로써 지난해 철광석생산
을 그 전해에 비하여 일약 2배로 끌어올리는
커다란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광산마을을
선군시대의 맛이 나게 일신시키는 눈부
신 전진을 가져왔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층층으로 이루어진
잘 정리된 채굴장들과 집채같은 대형채
굴설비들이 주련이 늘어난 드넓은 광구
들을 바라보시면서 광산의 로동계급이
1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현대적인
광산으로 전변시킨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광산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자력갱생, 간고
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몇

개월사이에 생산은 물론 광산
의 기술장비개선과 광산지구
를 꾸리기 위한 사업에서
참으로 많은 일을 하였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투쟁성과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광산의 광
부들이 튼튼히 꾸려진 물질기술
적토대에 기초하여 새해 첫 전
투에서부터 드세찬 공격전을 들
이대어 최들생산에서 원일 기적
과 혁신을 창조하고있는데 대해
매우 기뻐하시면서 그들의 비상
한 애국열의를 치하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당의
부름에 산악같이 일떠선 재령
의 광부들은 미래에 대한 락관
과 신심에 넘쳐 정초부터 생산
에서 놀라운 성과들을 달성하
고있다고 하시면서 이 자랑찬
성과는 일편단심 당을 따라 준
엄한 혁명의 시련을 승리적으
로 헤쳐온 믿음직한 충성의 대
오, 우리 로동계급의 불굴의
의지의 발현이며 그 어떤 풍파
속에서도 순간의 주저나 동요
를 모르고 오직 전진의 한길로
만 질풍같이 내달리는 가장 혁
명적이며 전투적인 영웅적조선
로동계급의 위력의 힘있는 파
시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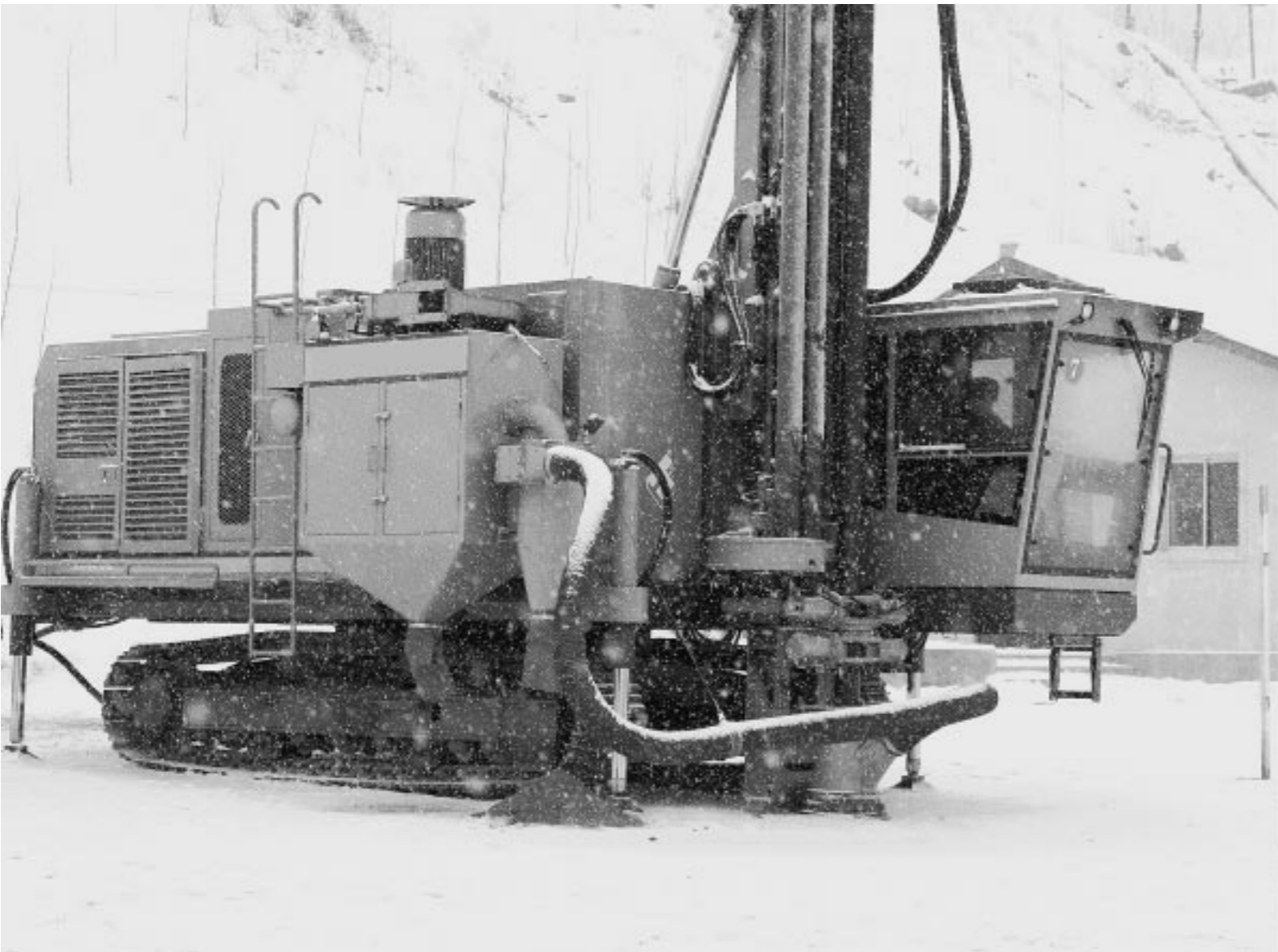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재령광산은
제철소들의 철생산과 직결되어
있는 중요한 기업소라고 하시
면서 광산앞에 나서는 강령적
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더욱 높아가는
철강제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는데서
재령광산의 위치와 역할이 대단히 중요
하다고 하시면서 광산의 로동계급은
강성대국건설의 전초병, 개척자답게
자기들에게 지워진 시대적사명을 훌륭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2 면 으 로 계 속



위 대한 령 도 자 김 정 일 동 지 께 서 새 해 전투로 들끓고있는 재령광산을 현지도하시였다



1 면 에서 계속
김정일동지께서는 철광산을 정상화하는데서 기본은 철광석생산을 앞세우

는것이라고 하시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다량락광, 다량처리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철광석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착정기, 굴착기, 자동차를 비롯한 모든 채굴 및 운반설비들에 대한 설비관리를 잘하고

정비보수를 정상화하여 그 가동률을 높이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각종 대형기계설비들을 가지고있는 재령광산의 경우 기술개조, 설비개조는 특별히 중요하므로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이 사업을 계속 실속있게 진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재령광산에서 쇠돌생산을 부단히 늘이자면 예비광량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쇠돌매장량이 풍부한 승리광구를 전망성있게 꾸리기 위한 사업을 잘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광물생산을 계통적으로 늘이기 위해서는 기업관리에 깊은 주의를 돌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광산의 일군들은 진취적이며 현실성있는 기업전략, 경영전략을 세우고 대고조진군을 주동적으로 밀고나가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광산의 후방공급사업정형을 알아보시고 기업소의 광부들은 추운 겨울에도 로천에서 일하는것만큼 이들의 사업과 생활에 특별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기업소의 일군들은 후방사업은 곧 정치사업이라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언제나 명심하고 당과 혁명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고있는 광부들에게 보다 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재령광산의 로동계급이 당의 위업을 앞장서 받아들여 선봉부대답게 앞으로도 강성대국건설대전의 전열에서 계급적본분을 다해나감으로써 올해의 총진군에서 또다시 영웅적기개와 필승의 기상을 떨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재령광산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새해 창조 생눈길을 헤치시며 자기들의 일터에 찾아오시여 새로운 위훈에로 따듯이 손잡아 이끌어주시며 한없는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는 어버이장군님께 다함없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빛나게 관철함으로써 자랑찬 로력적성물을 안고 10월의 대축전장으로 달려갈 불타는 결의에 충만되어있었다.

본사정치보도반



강성대국건설대전의 용감한 참전자들인 로동계급과 청년들을 비롯한 전체 인민이 자기 초소를 전선으로 여기고 과감한 공격전을 벌려야 한다. (공동사설에서)

철의 도시에 신념의 쇠붙이 끊어번진다

김책제철련합기업소 로동계급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해야 할 총공세의 해인 2010년!
위대한 승리를 향하여 새해 전투의 첫 발걸음을 힘있게 내짚은 온 나라 천만군민을 축복 해주듯 산에도 들에도, 거리와 마을에도 흰눈이 내려 소복이 쌓여있다.
우리 장군님께서 새해전투의 불길기를 지어주시는 철의 도시 김철도 흰눈으로 아름답게 단장되었다.

김철의 용해공들!
잊지 못할 그대로부터 세월은 멀리도 흘러갔다.
하나 혁명의 준엄한 년대기마다 김철로동계급의 심장은 당과 수령을 무서기등으로 받들며 한 마음으로 쇠붙이처럼 뜨겁게 끓어번졌으며 오늘도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선구자의 사명으로 새차게 불타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금속공업부문의 로동계급은 당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심장깊이 새기고 불굴의 정신력을 발휘하여 혁명적대고조의 불길기를 더욱 세차게 지퍼올림으로써 온 나라 전체 인민들에게 승리의 신심을 북돋아주어야 한다.》

김책제철련합기업소를 찾아 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새로 건설한 주체철용광로와 강철 2공장, 강괴관리직장을 비롯한 기업소의 여러곳을 돌아다니시면서 기술개진 및 건설정형과 생산실태를 구체적으로 로해하시고 보내 만족하시어 주셨으며 김철의 로동계급이 새해의 보람찬 투쟁에서 선봉에 설것을 뜨겁게 호소하시었다. 그러시면서 혁명의 준엄한 년대마다 철로 당중앙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다녀가신 이후 김철로동계급의 심장은 불도가마냥 새차게 끓어번졌다.
그들의 마음은 벌써 새해전투의 출발진지에 서있었다. 아니, 그들은 이미 2010년의 력사적인 전진군에 올라 대고조전투의 발걸음을 힘있게 내짚었다.
새해 첫 전투에서부터 통장훈을 부르기 위한 생산적양양의 불길이 기업소의 곳곳에서 새차게 타올랐다.
주체철용광로의 로동계급은 경애하는 장군님을 자기들의 일터에 모시었던 크나큰 영광과 행복을 가슴마다에 간직하고 새로 건설한 용광로 조업을 하루빨리 앞당겨 우리 식의 제철업을 더 나은 쇠붙이를 뽑기 위한 준비사실을 빈틈없이 해나갔으며 용

광로직장의 2호용광로 용해공들도 이에 뒤질세라 차지당, 교대당 쇠붙이생산량을 부쩍 늘이기 위해 투쟁을 과감하게 벌려나갔다.
쇠붙이생산전투로 들끓던 지난 해말 어느날이었다.
그날 최근년간에 있어본적 없는 높은 쇠붙이생산량과 함께 2호용광로에서는 뜻밖에도 사람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이채로운 광경이 펼쳐졌다.
눈부신 쇠붙이에 싸인 출진장에서 벌어진 난데없는 출진 장면이 마치 대고조전투에서 김철이 맨 앞장에 설때 대한 최상최대의 믿음과 기대를 안겨 주신 경애하는 장군님!
“명령은 내렸다. 새해의 대고조전투에서 김철의 본태를 떨치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다녀가신 이후 김철로동계급의 심장은 불도가마냥 새차게 끓어번졌다.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가며 한의 쇠붙이를 더 뽑기 위해 불철주야로 투쟁해온 긍지와 보람이 그렇듯 스스로 희한한 광경을 펼쳐보았던것이었다.
너도나도 한타하는 출진인듯 기쁨에 겨워 어깨춤을 들썩이던 그 때이러는 새해의 장엄한 전진군에 펼쳐나선 온 나라 전체 인민에게 김철로동계급이 보내는 열렬한 전투적인사였으며 올해 대고조의 전진군을 더욱더 높여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굳건히 담보하는 밑뿌리적역량을 다함으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에 거어 보답하려는 이들의 불타는 맹세의 분출이었다.

김철! 그 이름을 외우면 지난 세기 50년대의 격동적인 날들이 떠오른다.
조선의 천리마, 기적의 천리마가 창공에 나래쳐오르던 그때 김철은 장승과 황철과 나란히 조선의 상징, 천리마대고조의 상징이었다.

김철의 로동계급은 당중앙위원회 12월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시련과 난관을 과감히 박차고 보수주의자들과 소극분자들이 한해에 19만톤의 선철밖에 절대로 뽑을수 없다고 하던 용광로에서 27만톤의 선철을 뽑아내는 놀라운 기적을 창조하였다.

역사적인 제1차 5개년계획 수행의 첫해였던 1957년 5월 1호용광로현장을 몸소 찾으신 자기들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면서 정말 자신있는가고 물으시는 어버이수령님께 《수령님, 자신있습니다. 꼭 해내오야말로겠습니까!》라고 기운화답한 모습도 보이며 드려수령님께 큰 기쁨을 드리었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새로 건설한 주체철용광로와 강철 2공장, 강괴관리직장을 비롯한 기업소의 여러곳을 돌아다니시면서 기술개진 및 건설정형과 생산실태를 구체적으로 로해하시고 보내 만족하시어 주셨으며 김철의 로동계급이 새해의 보람찬 투쟁에서 선봉에 설것을 뜨겁게 호소하시었다. 그러시면서 혁명의 준엄한 년대마다 철로 당중앙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다녀가신 이후 김철로동계급의 심장은 불도가마냥 새차게 끓어번졌다.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가며 한의 쇠붙이를 더 뽑기 위해 불철주야로 투쟁해온 긍지와 보람이 그렇듯 스스로 희한한 광경을 펼쳐보았던것이었다.
너도나도 한타하는 출진인듯 기쁨에 겨워 어깨춤을 들썩이던 그 때이러는 새해의 장엄한 전진군에 펼쳐나선 온 나라 전체 인민에게 김철로동계급이 보내는 열렬한 전투적인사였으며 올해 대고조의 전진군을 더욱더 높여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굳건히 담보하는 밑뿌리적역량을 다함으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에 거어 보답하려는 이들의 불타는 맹세의 분출이었다.

김철! 그 이름을 외우면 지난 세기 50년대의 격동적인 날들이 떠오른다.
조선의 천리마, 기적의 천리마가 창공에 나래쳐오르던 그때 김철은 장승과 황철과 나란히 조선의 상징, 천리마대고조의 상징이었다.

김철의 로동계급은 당중앙위원회 12월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시련과 난관을 과감히 박차고 보수주의자들과 소극분자들이 한해에 19만톤의 선철밖에 절대로 뽑을수 없다고 하던 용광로에서 27만톤의 선철을 뽑아내는 놀라운 기적을 창조하였다.

역사적인 제1차 5개년계획 수행의 첫해였던 1957년 5월 1호용광로현장을 몸소 찾으신 자기들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면서 정말 자신있는가고 물으시는 어버이수령님께 《수령님, 자신있습니다. 꼭 해내오야말로겠습니까!》라고 기운화답한 모습도 보이며 드려수령님께 큰 기쁨을 드리었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새로 건설한 주체철용광로와 강철 2공장, 강괴관리직장을 비롯한 기업소의 여러곳을 돌아다니시면서 기술개진 및 건설정형과 생산실태를 구체적으로 로해하시고 보내 만족하시어 주셨으며 김철의 로동계급이 새해의 보람찬 투쟁에서 선봉에 설것을 뜨겁게 호소하시었다. 그러시면서 혁명의 준엄한 년대마다 철로 당중앙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다녀가신 이후 김철로동계급의 심장은 불도가마냥 새차게 끓어번졌다.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가며 한의 쇠붙이를 더 뽑기 위해 불철주야로 투쟁해온 긍지와 보람이 그렇듯 스스로 희한한 광경을 펼쳐보았던것이었다.
너도나도 한타하는 출진인듯 기쁨에 겨워 어깨춤을 들썩이던 그 때이러는 새해의 장엄한 전진군에 펼쳐나선 온 나라 전체 인민에게 김철로동계급이 보내는 열렬한 전투적인사였으며 올해 대고조의 전진군을 더욱더 높여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굳건히 담보하는 밑뿌리적역량을 다함으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에 거어 보답하려는 이들의 불타는 맹세의 분출이었다.

김철! 그 이름을 외우면 지난 세기 50년대의 격동적인 날들이 떠오른다.
조선의 천리마, 기적의 천리마가 창공에 나래쳐오르던 그때 김철은 장승과 황철과 나란히 조선의 상징, 천리마대고조의 상징이었다.

김철의 로동계급은 당중앙위원회 12월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시련과 난관을 과감히 박차고 보수주의자들과 소극분자들이 한해에 19만톤의 선철밖에 절대로 뽑을수 없다고 하던 용광로에서 27만톤의 선철을 뽑아내는 놀라운 기적을 창조하였다.

역사적인 제1차 5개년계획 수행의 첫해였던 1957년 5월 1호용광로현장을 몸소 찾으신 자기들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면서 정말 자신있는가고 물으시는 어버이수령님께 《수령님, 자신있습니다. 꼭 해내오야말로겠습니까!》라고 기운화답한 모습도 보이며 드려수령님께 큰 기쁨을 드리었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새로 건설한 주체철용광로와 강철 2공장, 강괴관리직장을 비롯한 기업소의 여러곳을 돌아다니시면서 기술개진 및 건설정형과 생산실태를 구체적으로 로해하시고 보내 만족하시어 주셨으며 김철의 로동계급이 새해의 보람찬 투쟁에서 선봉에 설것을 뜨겁게 호소하시었다. 그러시면서 혁명의 준엄한 년대마다 철로 당중앙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다녀가신 이후 김철로동계급의 심장은 불도가마냥 새차게 끓어번졌다.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가며 한의 쇠붙이를 더 뽑기 위해 불철주야로 투쟁해온 긍지와 보람이 그렇듯 스스로 희한한 광경을 펼쳐보았던것이었다.
너도나도 한타하는 출진인듯 기쁨에 겨워 어깨춤을 들썩이던 그 때이러는 새해의 장엄한 전진군에 펼쳐나선 온 나라 전체 인민에게 김철로동계급이 보내는 열렬한 전투적인사였으며 올해 대고조의 전진군을 더욱더 높여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굳건히 담보하는 밑뿌리적역량을 다함으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에 거어 보답하려는 이들의 불타는 맹세의 분출이었다.

김철! 그 이름을 외우면 지난 세기 50년대의 격동적인 날들이 떠오른다.
조선의 천리마, 기적의 천리마가 창공에 나래쳐오르던 그때 김철은 장승과 황철과 나란히 조선의 상징, 천리마대고조의 상징이었다.

김철의 로동계급은 당중앙위원회 12월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시련과 난관을 과감히 박차고 보수주의자들과 소극분자들이 한해에 19만톤의 선철밖에 절대로 뽑을수 없다고 하던 용광로에서 27만톤의 선철을 뽑아내는 놀라운 기적을 창조하였다.

역사적인 제1차 5개년계획 수행의 첫해였던 1957년 5월 1호용광로현장을 몸소 찾으신 자기들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면서 정말 자신있는가고 물으시는 어버이수령님께 《수령님, 자신있습니다. 꼭 해내오야말로겠습니까!》라고 기운화답한 모습도 보이며 드려수령님께 큰 기쁨을 드리었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새로 건설한 주체철용광로와 강철 2공장, 강괴관리직장을 비롯한 기업소의 여러곳을 돌아다니시면서 기술개진 및 건설정형과 생산실태를 구체적으로 로해하시고 보내 만족하시어 주셨으며 김철의 로동계급이 새해의 보람찬 투쟁에서 선봉에 설것을 뜨겁게 호소하시었다. 그러시면서 혁명의 준엄한 년대마다 철로 당중앙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다녀가신 이후 김철로동계급의 심장은 불도가마냥 새차게 끓어번졌다.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가며 한의 쇠붙이를 더 뽑기 위해 불철주야로 투쟁해온 긍지와 보람이 그렇듯 스스로 희한한 광경을 펼쳐보았던것이었다.
너도나도 한타하는 출진인듯 기쁨에 겨워 어깨춤을 들썩이던 그 때이러는 새해의 장엄한 전진군에 펼쳐나선 온 나라 전체 인민에게 김철로동계급이 보내는 열렬한 전투적인사였으며 올해 대고조의 전진군을 더욱더 높여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굳건히 담보하는 밑뿌리적역량을 다함으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에 거어 보답하려는 이들의 불타는 맹세의 분출이었다.

김철! 그 이름을 외우면 지난 세기 50년대의 격동적인 날들이 떠오른다.
조선의 천리마, 기적의 천리마가 창공에 나래쳐오르던 그때 김철은 장승과 황철과 나란히 조선의 상징, 천리마대고조의 상징이었다.

김철의 로동계급은 당중앙위원회 12월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시련과 난관을 과감히 박차고 보수주의자들과 소극분자들이 한해에 19만톤의 선철밖에 절대로 뽑을수 없다고 하던 용광로에서 27만톤의 선철을 뽑아내는 놀라운 기적을 창조하였다.

역사적인 제1차 5개년계획 수행의 첫해였던 1957년 5월 1호용광로현장을 몸소 찾으신 자기들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면서 정말 자신있는가고 물으시는 어버이수령님께 《수령님, 자신있습니다. 꼭 해내오야말로겠습니까!》라고 기운화답한 모습도 보이며 드려수령님께 큰 기쁨을 드리었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새로 건설한 주체철용광로와 강철 2공장, 강괴관리직장을 비롯한 기업소의 여러곳을 돌아다니시면서 기술개진 및 건설정형과 생산실태를 구체적으로 로해하시고 보내 만족하시어 주셨으며 김철의 로동계급이 새해의 보람찬 투쟁에서 선봉에 설것을 뜨겁게 호소하시었다. 그러시면서 혁명의 준엄한 년대마다 철로 당중앙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다녀가신 이후 김철로동계급의 심장은 불도가마냥 새차게 끓어번졌다.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가며 한의 쇠붙이를 더 뽑기 위해 불철주야로 투쟁해온 긍지와 보람이 그렇듯 스스로 희한한 광경을 펼쳐보았던것이었다.
너도나도 한타하는 출진인듯 기쁨에 겨워 어깨춤을 들썩이던 그 때이러는 새해의 장엄한 전진군에 펼쳐나선 온 나라 전체 인민에게 김철로동계급이 보내는 열렬한 전투적인사였으며 올해 대고조의 전진군을 더욱더 높여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굳건히 담보하는 밑뿌리적역량을 다함으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에 거어 보답하려는 이들의 불타는 맹세의 분출이었다.

김철! 그 이름을 외우면 지난 세기 50년대의 격동적인 날들이 떠오른다.
조선의 천리마, 기적의 천리마가 창공에 나래쳐오르던 그때 김철은 장승과 황철과 나란히 조선의 상징, 천리마대고조의 상징이었다.

김철의 로동계급은 당중앙위원회 12월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시련과 난관을 과감히 박차고 보수주의자들과 소극분자들이 한해에 19만톤의 선철밖에 절대로 뽑을수 없다고 하던 용광로에서 27만톤의 선철을 뽑아내는 놀라운 기적을 창조하였다.

역사적인 제1차 5개년계획 수행의 첫해였던 1957년 5월 1호용광로현장을 몸소 찾으신 자기들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면서 정말 자신있는가고 물으시는 어버이수령님께 《수령님, 자신있습니다. 꼭 해내오야말로겠습니까!》라고 기운화답한 모습도 보이며 드려수령님께 큰 기쁨을 드리었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새로 건설한 주체철용광로와 강철 2공장, 강괴관리직장을 비롯한 기업소의 여러곳을 돌아다니시면서 기술개진 및 건설정형과 생산실태를 구체적으로 로해하시고 보내 만족하시어 주셨으며 김철의 로동계급이 새해의 보람찬 투쟁에서 선봉에 설것을 뜨겁게 호소하시었다. 그러시면서 혁명의 준엄한 년대마다 철로 당중앙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다녀가신 이후 김철로동계급의 심장은 불도가마냥 새차게 끓어번졌다.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가며 한의 쇠붙이를 더 뽑기 위해 불철주야로 투쟁해온 긍지와 보람이 그렇듯 스스로 희한한 광경을 펼쳐보았던것이었다.
너도나도 한타하는 출진인듯 기쁨에 겨워 어깨춤을 들썩이던 그 때이러는 새해의 장엄한 전진군에 펼쳐나선 온 나라 전체 인민에게 김철로동계급이 보내는 열렬한 전투적인사였으며 올해 대고조의 전진군을 더욱더 높여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굳건히 담보하는 밑뿌리적역량을 다함으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에 거어 보답하려는 이들의 불타는 맹세의 분출이었다.

김철! 그 이름을 외우면 지난 세기 50년대의 격동적인 날들이 떠오른다.
조선의 천리마, 기적의 천리마가 창공에 나래쳐오르던 그때 김철은 장승과 황철과 나란히 조선의 상징, 천리마대고조의 상징이었다.

김철의 로동계급은 당중앙위원회 12월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시련과 난관을 과감히 박차고 보수주의자들과 소극분자들이 한해에 19만톤의 선철밖에 절대로 뽑을수 없다고 하던 용광로에서 27만톤의 선철을 뽑아내는 놀라운 기적을 창조하였다.

역사적인 제1차 5개년계획 수행의 첫해였던 1957년 5월 1호용광로현장을 몸소 찾으신 자기들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면서 정말 자신있는가고 물으시는 어버이수령님께 《수령님, 자신있습니다. 꼭 해내오야말로겠습니까!》라고 기운화답한 모습도 보이며 드려수령님께 큰 기쁨을 드리었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새로 건설한 주체철용광로와 강철 2공장, 강괴관리직장을 비롯한 기업소의 여러곳을 돌아다니시면서 기술개진 및 건설정형과 생산실태를 구체적으로 로해하시고 보내 만족하시어 주셨으며 김철의 로동계급이 새해의 보람찬 투쟁에서 선봉에 설것을 뜨겁게 호소하시었다. 그러시면서 혁명의 준엄한 년대마다 철로 당중앙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다녀가신 이후 김철로동계급의 심장은 불도가마냥 새차게 끓어번졌다.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가며 한의 쇠붙이를 더 뽑기 위해 불철주야로 투쟁해온 긍지와 보람이 그렇듯 스스로 희한한 광경을 펼쳐보았던것이었다.
너도나도 한타하는 출진인듯 기쁨에 겨워 어깨춤을 들썩이던 그 때이러는 새해의 장엄한 전진군에 펼쳐나선 온 나라 전체 인민에게 김철로동계급이 보내는 열렬한 전투적인사였으며 올해 대고조의 전진군을 더욱더 높여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굳건히 담보하는 밑뿌리적역량을 다함으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에 거어 보답하려는 이들의 불타는 맹세의 분출이었다.

김철! 그 이름을 외우면 지난 세기 50년대의 격동적인 날들이 떠오른다.
조선의 천리마, 기적의 천리마가 창공에 나래쳐오르던 그때 김철은 장승과 황철과 나란히 조선의 상징, 천리마대고조의 상징이었다.

김철의 로동계급은 당중앙위원회 12월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시련과 난관을 과감히 박차고 보수주의자들과 소극분자들이 한해에 19만톤의 선철밖에 절대로 뽑을수 없다고 하던 용광로에서 27만톤의 선철을 뽑아내는 놀라운 기적을 창조하였다.

역사적인 제1차 5개년계획 수행의 첫해였던 1957년 5월 1호용광로현장을 몸소 찾으신 자기들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면서 정말 자신있는가고 물으시는 어버이수령님께 《수령님, 자신있습니다. 꼭 해내오야말로겠습니까!》라고 기운화답한 모습도 보이며 드려수령님께 큰 기쁨을 드리었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새로 건설한 주체철용광로와 강철 2공장, 강괴관리직장을 비롯한 기업소의 여러곳을 돌아다니시면서 기술개진 및 건설정형과 생산실태를 구체적으로 로해하시고 보내 만족하시어 주셨으며 김철의 로동계급이 새해의 보람찬 투쟁에서 선봉에 설것을 뜨겁게 호소하시었다. 그러시면서 혁명의 준엄한 년대마다 철로 당중앙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다녀가신 이후 김철로동계급의 심장은 불도가마냥 새차게 끓어번졌다.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가며 한의 쇠붙이를 더 뽑기 위해 불철주야로 투쟁해온 긍지와 보람이 그렇듯 스스로 희한한 광경을 펼쳐보았던것이었다.
너도나도 한타하는 출진인듯 기쁨에 겨워 어깨춤을 들썩이던 그 때이러는 새해의 장엄한 전진군에 펼쳐나선 온 나라 전체 인민에게 김철로동계급이 보내는 열렬한 전투적인사였으며 올해 대고조의 전진군을 더욱더 높여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굳건히 담보하는 밑뿌리적역량을 다함으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에 거어 보답하려는 이들의 불타는 맹세의 분출이었다.

혁명적투쟁기풍이 안아온 결실

원산군민발전소 불길굴건설 1려단 일군들과 돌격대원들
새해공동사실을 피륙은 심장마다에 받아안는 불길굴건설 1려단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새로운 전투적기풍과 혁명적열정을 안고 신심도높이 떨쳐나섰다.
이런데도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 시대의 참된 삶의 가치는 단과 수령의 사상과 뜻을 받들고 성스러운 주체혁명위업에 헌신하는 보람찬 투쟁속에 있습니다.》
각 중대 지휘관들이 려단지휘부로부터 한시간에 문명제련소중대로 도착하라는 긴급명령을 받은 날이었다. 서둘러 목적지에 들어서는 지휘관들의 얼굴마다에는 긴장한 빛이 어렸다.
그러나 그들은 뜻밖에도 번듯하게 꾸러진 집집승우리와 한층더 빛나는 제련소중대의 곳곳으로 안내되었다. 지휘관들의 놀라움은 감동으로 바뀌어졌다. 려단적으로 제일 어려운 공사과제를 맡아 수행하는 속에서도 문명제련소중대는 짧은 기간에 문화후생시설과 농업기지를 비롯한 여러 중대생활을 기쁨있게 해나가고 있었다.
《규모있고 알뜰한 혁명적인 투쟁과 생활속에 대로의 단합도 전투력의 담보도 있다는 것을 명심합니다.》
— 단 하루밤을 목어도 숙영지를 알뜰히 꾸러왔던 할일유격대원처럼 우리의 생활기지를 잘 꾸러라.
은 려단이 이런 지향을 안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전투에 발맞추어 떨쳐나섰다.
낮에는 한바탕 대대를 틀어쥐고 밤에는 불공치를 쫓아내고 자기 힘으로 자기 생활을 꾸러

후방기지를 두고 사람들이 전진하는 막장들에 보내는 또 하나의 《압축공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우연치 않았다.
헌신의 구슬땀 흘려 이룩한 그 창조물들을 바라보며 이곳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아름답고 합쳐졌지만 기쁘고 보람찬 날들에 대한 추억으로 가슴 설레이곤 한다.
각 중대 지휘관들이 려단지휘부로부터 한시간에 문명제련소중대로 도착하라는 긴급명령을 받은 날이었다. 서둘러 목적지에 들어서는 지휘관들의 얼굴마다에는 긴장한 빛이 어렸다.
그러나 그들은 뜻밖에도 번듯하게 꾸러진 집집승우리와 한층더 빛나는 제련소중대의 곳곳으로 안내되었다. 지휘관들의 놀라움은 감동으로 바뀌어졌다. 려단적으로 제일 어려운 공사과제를 맡아 수행하는 속에서도 문명제련소중대는 짧은 기간에 문화후생시설과 농업기지를 비롯한 여러 중대생활을 기쁨있게 해나가고 있었다.
《규모있고 알뜰한 혁명적인 투쟁과 생활속에 대로의 단합도 전투력의 담보도 있다는 것을 명심합니다.》
— 단 하루밤을 목어도 숙영지를 알뜰히 꾸러왔던 할일유격대원처럼 우리의 생활기지를 잘 꾸러라.
은 려단이 이런 지향을 안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전투에 발맞추어 떨쳐나섰다.
낮에는 한바탕 대대를 틀어쥐고 밤에는 불공치를 쫓아내고 자기 힘으로 자기 생활을 꾸러

나가는 돌격대원들의 불꽃튀는 전투로 범동굴은 말 그대로 불도가마냥 끓어번졌다. 그 앞에는 늘 일군들이 서있었다.
언제나 위대한 장군님을 그리며 장군님께서 평가하신 선군시대 자력생활의 창조물들에 대한 소식이 접하면 현지로 달려가 경험을 배워 드립듯이 실천하는 최현원동무의 불타는 일본새는 그대로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의 사업기풍, 생활기풍으로 되었다.
산사대로 자동차길이 막히자 높고 험한 고개를 하루밤사이에 세번이나 넘나들며 우양종점소와 토기를 구해오기도 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방콕구간에 남먼저 뛰어들어 광복구 전투를 벌리곤 한 최현원동무의 이신작풍은 일터에 자력생활의 불길, 위훈의 불길을 힘차게 지퍼올렸다.
그로부터 얼마후 려단안의 모든 중대들은 한쪽의 그림처럼 자기 모습을 일신시켰다. 무엇이 불가능하다며 못쳐 더 높이, 더 빨리 비약해나가고있는 조선의 단장군님의 가르치신 정당성을 그들은 투쟁을 통하여 온몸으로 체증하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의 투쟁기풍, 생활기풍을 본받아 강성대국의 대문을 남먼저 열어제끼기 위하여 한덩어리로 못쳐 더 높이, 더 빨리 비약해나가고있는 려단에서는 남다른 뜻과 굳은 혁신이 창조되었고이며 아름다운 소생활이 무수히 꽃피어나고 있다.
자랑많은 집단에 또 하나의 큰 자랑이 있었다. 열매친 려단에서는 투쟁의 노력영웅이 나왔으며 여러명이 위대한 장군님의 표창장을 수여받는 영광을 지니었다.
리 경 일

김철! 그 이름을 외우면 지난 세기 50년대의 격동적인 날들이 떠오른다.
조선의 천리마, 기적의 천리마가 창공에 나래쳐오르던 그때 김철은 장승과 황철과 나란히 조선의 상징, 천리마대고조의 상징이었다.

김철의 로동계급은 당중앙위원회 12월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시련과 난관을 과감히 박차고 보수주의자들과 소극분자들이 한해에 19만톤의 선철밖에 절대로 뽑을수 없다고 하던 용광로에서 27만톤의 선철을 뽑아내는 놀라운 기적을 창조하였다.

역사적인 제1차 5개년계획 수행의 첫해였던 1957년 5월 1호용광로현장을 몸소 찾으신 자기들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면서 정말 자신있는가고 물으시는 어버이수령님께 《수령님, 자신있습니다. 꼭 해내오야말로겠습니까!》라고 기운화답한 모습도 보이며 드려수령님께 큰 기쁨을 드리었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새로 건설한 주체철용광로와 강철 2공장, 강괴관리직장을 비롯한 기업소의 여러곳을 돌아다니시면서 기술개진 및 건설정형과 생산실태를 구체적으로 로해하시고 보내 만족하시어 주셨으며 김철의 로동계급이 새해의 보람찬 투쟁에서 선봉에 설것을 뜨겁게 호소하시었다. 그러시면서 혁명의 준엄한 년대마다 철로 당중앙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다녀가신 이후 김철로동계급의 심장은 불도가마냥 새차게 끓어번졌다.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가며 한의 쇠붙이를 더 뽑기 위해 불철주야로 투쟁해온 긍지와 보람이 그렇듯 스스로 희한한 광경을 펼쳐보았던것이었다.
너도나도 한타하는 출진인듯 기쁨에 겨워 어깨춤을 들썩이던 그 때이러는 새해의 장엄한 전진군에 펼쳐나선 온 나라 전체 인민에게 김철로동계급이 보내는 열렬한 전투적인사였으며 올해 대고조의 전진군을 더욱더 높여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굳건히 담보하는 밑뿌리적역량을 다함으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에 거어 보답하려는 이들의 불타는 맹세의 분출이었다.

김철! 그 이름을 외우면 지난 세기 50년대의 격동적인 날들이 떠오른다.
조선의 천리마, 기적의 천리마가 창공에 나래쳐오르던 그때 김철은 장승과 황철과 나란히 조선의 상징, 천리마대고조의 상징이었다.

김철의 로동계급은 당중앙위원회 12월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시련과 난관을 과감히 박차고 보수주의자들과 소극분자들이 한해에 19만톤의 선철밖에 절대로 뽑을수 없다고 하던 용광로에서 27만톤의 선철을 뽑아내는 놀라운 기적을 창조하였다.

역사적인 제1차 5개년계획 수행의 첫해였던 1957년 5월 1호용광로현장을 몸소 찾으신 자기들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면서 정말 자신있는가고 물으시는 어버이수령님께 《수령님, 자신있습니다. 꼭 해내오야말로겠습니까!》라고 기운화답한 모습도 보이며 드려수령님께 큰 기쁨을 드리었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새로 건설한 주체철용광로와 강철 2공장, 강괴관리직장을 비롯한 기업소의 여러곳을 돌아다니시면서 기술개진 및 건설정형과 생산실태를 구체적으로 로해하시고 보내 만족하시어 주셨으며 김철의 로동계급이 새해의 보람찬 투쟁에서 선봉에 설것을 뜨겁게 호소하시었다. 그러시면서 혁명의 준엄한 년대마다 철로 당중앙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다녀가신 이후 김철로동계급의 심장은 불도가마냥 새차게 끓어번졌다.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가며 한의 쇠붙이를 더 뽑기 위해 불철주야로 투쟁해온 긍지와 보람이 그렇듯 스스로 희한한 광경을 펼쳐보았던것이었다.
너도나도 한타하는 출진인듯 기쁨에 겨워 어깨춤을 들썩이던 그 때이러는 새해의 장엄한 전진군에 펼쳐나선 온 나라 전체 인민에게 김철로동계급이 보내는 열렬한 전투적인사였으며 올해 대고조의 전진군을 더욱더 높여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굳건히 담보하는 밑뿌리적역량을 다함으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에 거어 보답하려는 이들의 불타는 맹세의 분출이었다.

김철! 그 이름을 외우면 지난 세기 50년대의 격동적인 날들이 떠오른다.
조선의 천리마, 기적의 천리마가 창공에 나래쳐오르던 그때 김철은 장승과 황철과 나란히 조선의 상징, 천리마대고조의 상징이었다.

김철의 로동계급은 당중앙위원회 12월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시련과 난관을 과감히 박차고 보수주의자들과 소극분자들이 한해에 19만톤의 선철밖에 절대로 뽑을수 없다고 하던 용광로에서 27만톤의 선철을 뽑아내는 놀라운 기적을 창조하였다.

역사적인 제1차 5개년계획 수행의 첫해였던 1957년 5월 1호용광로현장을 몸소 찾으신 자기들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면서 정말 자신있는가고 물으시는 어버이수령님께 《수령님, 자신있습니다. 꼭 해내오야말로겠습니까!》라고 기운화답한 모습도 보이며 드려수령님께 큰 기쁨을 드리었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새로 건설한 주체철용광로와 강철 2공장, 강괴관리직장을 비롯한 기업소의 여러곳을 돌아다니시면서 기술개진 및 건설정형과 생산실태를 구체적으로 로해하시고 보내 만족하시어 주셨으며 김철의 로동계급이 새해의 보람찬 투쟁에서 선봉에 설것을 뜨겁게 호소하시었다. 그러시면서 혁명의 준엄한 년대마다 철로 당중앙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다녀가신 이후 김철로동계급의 심장은 불도가마냥 새차게 끓어번졌다.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가며 한의 쇠붙이를 더 뽑기 위해 불철주야로 투쟁해온 긍지와 보람이 그렇듯 스스로 희한한 광경을 펼쳐보았던것이었다.
너도나도 한타하는 출진인듯 기쁨에 겨워 어깨춤을 들썩이던 그 때이러는 새해의 장엄한 전진군에 펼쳐나선 온 나라 전체 인민에게 김철로동계급이 보내는 열렬한 전투적인사였으며 올해 대고조의 전진군을 더욱더 높여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굳건히 담보하는 밑뿌리적역량을 다함으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에 거어 보답하려는 이들의 불타는 맹세의 분출이었다.

김철! 그 이름을 외우면 지난 세기 50년대의 격동적인 날들이 떠오른다.
조선의 천리마, 기적의 천리마가 창공에 나래쳐오르던 그때 김철은 장승과 황철과 나란히 조선의 상징, 천리마대고조의 상징이었다.

김철의 로동계급은 당중앙위원회 12월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시련과 난관을 과감히 박차고 보수주의자들과 소극분자들이 한해에 19만톤의 선철밖에 절대로 뽑을수 없다고 하던 용광로에서 27만톤의 선철을 뽑아내는 놀라운 기적을 창조하였다.

역사적인 제1차 5개년계획 수행의 첫해였던 1957년 5월 1호용광로현장을 몸소 찾으신 자기들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면서 정말 자신있는가고 물으시는 어버이수령님께 《수령님, 자신있습니다. 꼭 해내오야말로겠습니까!》라고 기운화답한 모습도 보이며 드려수령님께 큰 기쁨을 드리었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새로 건설한 주체철용광로와 강철 2공장, 강괴관리직장을 비롯한 기업소의 여러곳을 돌아다니시면서 기술개진 및 건설정형과 생산실태를 구체적으로 로해하시고 보내 만족하시어 주셨으며 김철의 로동계급이 새해의 보람찬 투쟁에서 선봉에 설것을 뜨겁게 호소하시었다. 그러시면서 혁명의 준엄한 년대마다 철로 당중앙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다녀가신 이후 김철로동계급의 심장은 불도가마냥 새차게 끓어번졌다.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가며 한의 쇠붙이를 더 뽑기 위해 불철주야로 투쟁해온 긍지와 보람이 그렇듯 스스로 희한한 광경을 펼쳐보았던것이었다.
너도나도 한타하는 출진인듯 기쁨에 겨워 어깨춤을 들썩이던 그 때이러는 새해의 장엄한 전진군에 펼쳐나선 온 나라 전체 인민에게 김철로동계급이 보내는 열렬한 전투적인사였으며 올해 대고조의 전진군을 더욱더 높여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굳건히 담보하는 밑뿌리적역량을 다함으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에 거어 보답하려는 이들의 불타는 맹세의 분출이었다.

김철! 그 이름을 외우면 지난 세기 50년대의 격동적인 날들이 떠오른다.
조선의 천리마, 기적의 천리마가 창공에 나래쳐오르던 그때 김철은 장승과 황철과 나란히 조선의 상징, 천리마대고조의 상징이었다.

김철의 로동계급은 당중앙위원회 12월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시련과 난관을 과감히 박차고 보수주의자들과 소극분자들이 한해에 19만톤의 선철밖에 절대로 뽑을수 없다고 하던 용광로에서 27만톤의 선철을 뽑아내는 놀라운 기적을 창조하였다.

</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자

희망찬 새해 주제 99(2010)년을 맞아 우리 겨레의 가슴마다에 조국통일에 대한 역사적사명감과 애국의 열정이 세차게 불타오르고 있다.

당보, 군보, 청년보의 새해공동사실은 전체 조선민족에게 6.15 공동선언발표 10돐이 되는 올해를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놓는 해로 빛나게 장식할데 대하여 호소하였다. 애국으로 뭉치는 심장마다에 공동사실의 구절구절을 새겨안은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밑에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새 아침을 앞당겨 오고야말라는 신념과 의지를 굳게 가다듬고있다.

지난해에 6.15 통일시대의 전진을 가로막아나선 안팎의 분별주의세력의 도전은 극도에 달하였다. 미국과 주종세력들의 반공화국(제) 소수당이 어느때보다도 우심해지고 남조선의 반통일세력들은 의외에 추종하여 북남관계와 전쟁도발소동에 광분하였다. 남조선 군부호전파들은 의외와 함께 위협천만 《키리졸브》와 《독수리》, 《울지 프리덤 가디언》을 비롯한 대규모적인 북침합동군사연습을 매일과 같이 벌여놓았으며 파쇼당들은 동족대결을 고취하면서 통일애국세력에 대한 탄압공세를 더욱 로 말화하고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위한 인민들의 투쟁마저 무차별적으로 짓밟았다. 이로 말미암아 북남관계는 최대로 악화되었으며 자주통일을 위한 우리 민족의 앞길에는 엄청난 난관이 조성되었다.

그러나 반통일세력들의 그 어떤 책에도 자주통일, 평화번영에 대한 거대한 강렬한 지향과 힘차게 전진하는 조국통일운동을 가로막을 수 없었다.

공동사실에 지적된바와 같이 우리는 지난해에 악화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국통일의 전환적국면을 열기 위한 중추적이며 대법한 조치들을 취하면서 성의있는 노력을 다하였다. 지난해 8월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현대그룹사실의 공동보도문이 발표되고 특사조치의 방문단이 서울을 방문하였다. 《우리 민족끼리》 정신에 기초하여 북남관계를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우리의 주동적인 조치와 동포적인 아량에 의해 북과 남으로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상봉이 진행되었으며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이것은 내외의 커다란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켰으며 우리 민족의 통일열망과 단합기운을 고조시키고 6.15 통일시대의 전진을 힘있게 추동하였다.

하지만 남조선당국은 말로는 《대화와 협력》을 운운하면서도 실제로 있어서는 부당하게 핵문제를 끌고 북남관계차단책동에 악랄하게 매달리면서 서해무장도발사건 등으로 민족의 화해협력분위기를 찬물을 끼얹었다. 북남사이애 대화와 협력이 아니라 대결과 전쟁을 추구하는 남조선당국의 행위는 온 겨레의 지치는 분노와 항거를 불러일으켰다. 남조선인민들은 보수당국의 시대착오적인 대결전쟁책동을 반대하는 대중적투쟁의 불길게 세계를 지펴올렸다.

현실은 반통일세력이 제아무리 발악하여도 북남공동선언들을 리행하여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이룩해나갈려는 겨레의 지향과 의지를 꺾을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지난 한해를 돌이켜 보면서 전체 조선민족은 통일애국세력인 분별주의세력을 압도하고 승리하는 것은 막을수 없는 역사의 필연이라는 진리를 다시금 깊이

새기고있다.

새해 공동사실은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발표 10돐이 되는 올해에 우리 겨레가 조국통일을 열기 위한 중추적이며 대법한 조치들을 취하면서 성의있는 노력을 다하였다. 지난해 8월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현대그룹사실의 공동보도문이 발표되고 특사조치의 방문단이 서울을 방문하였다. 《우리 민족끼리》 정신에 기초하여 북남관계를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우리의 주동적인 조치와 동포적인 아량에 의해 북과 남으로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상봉이 진행되었으며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이것은 내외의 커다란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켰으며 우리 민족의 통일열망과 단합기운을 고조시키고 6.15 통일시대의 전진을 힘있게 추동하였다.

하지만 남조선당국은 말로는 《대화와 협력》을 운운하면서도 실제로 있어서는 부당하게 핵문제를 끌고 북남관계차단책동에 악랄하게 매달리면서 서해무장도발사건 등으로 민족의 화해협력분위기를 찬물을 끼얹었다. 북남사이애 대화와 협력이 아니라 대결과 전쟁을 추구하는 남조선당국의 행위는 온 겨레의 지치는 분노와 항거를 불러일으켰다. 남조선인민들은 보수당국의 시대착오적인 대결전쟁책동을 반대하는 대중적투쟁의 불길게 세계를 지펴올렸다.

현실은 반통일세력이 제아무리 발악하여도 북남공동선언들을 리행하여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이룩해나갈려는 겨레의 지향과 의지를 꺾을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지난 한해를 돌이켜 보면서 전체 조선민족은 통일애국세력인 분별주의세력을 압도하고 승리하는 것은 막을수 없는 역사의 필연이라는 진리를 다시금 깊이

이룩하시려는 경에는 장군님의 승고한 애국애족의 뜻과 정력적인 령도에 의해 6.15 공동선언의 실행강령인 10.4선언이 마련됨으로써 이 땅에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경에는 장군님의 조국통일에 대한 확고부동한 의지와 온 겨레를 품어 안는 한없이 넓은 도량과 포용력,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령도는 6.15 통일시대의 전진을 추동하는 원동력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마련해주신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은 자주통일의 표제이다. 그것이 있어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따라 전진하는 력사의 새시대가 열리고 북남관계발전과 조국통일운동에서는 일찌기 불수 없었던 사변적성과파괴가 기록되었으며 온 겨레는 희망과 신심을 넘쳐나고 있다.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위한 애국투쟁을 줄기차게 벌여주시었다. 북남공동선언들이 가장 정당한 통일대강령인 《우리 민족끼리》야말로 6.15 통일시대의 민족정신과 유일무이한 리념이라는 바로 이것이 지난 10년간의 주된 충효이다.

새해공동사실은 해외의 온 겨레에게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밑에 온 민족이 단합하여 조국통일을 하 무뎠리 실현하자!》는 투쟁구호를 제시하였다. 여기에는 올해 조국통일운동의 총적방향과 투쟁방도가 명백히 밝혀져있다.

조국통일에 우리 민족의 자주적 운명적의 길이 있고 밝은 미래가 있다. 오늘 우리 민족이 높이 들고 나가야 할 투쟁의 기치는 다음아닌 6.15 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이다. 자주통일시대의 현실을 통하여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뚜렷이 확증된 북남공동선언들을 견결히 옹호하고 성실히 리행하

는 여기에 자주통일과 민족번영의 근분담보가 있다. 공동선언리행의 열쇠는 조국통일의 주제인 우리 민족의 단합에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은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밑에 온 민족이 굳게 단결하여 조국통일의 그날을 앞당겨나갈것을 전체 조선민족에게 호소한것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공동사실에서 제시한 투쟁구호를 심장깊이 새겨안고 북남공동선언리행을 위한 통일애국투쟁에 거족적으로 떨쳐나서도록 민족앞에 지닌 각자의 책임과 분수를 다해나가야 한다.

북남관계개선의 길을 열어나가자 한다.

북남관계개선은 현시기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위업실현에서 결정적인 요인으로 나서고있다. 북남관계가 개선되어야 서로의 불신과 대결을 가시치고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며 민족의 통일번영을 이룩해나갈수 있다. 북남관계개선은 조국통일과 조선반도평화와 안정의 중요한 조건이다. 남조선당국이 북남공동선언들을 부정하고 의외와 결탁하여 대결소동에 계속 매달린다면 북남관계는 언제 가도 개선될수 없다. 남조선당국은 동족사이애 대결과 긴장을 격화시키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하며 북남공동선언들을 존중하고 대화와 관계개선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무엇보다도 의외의 손이 아니라 민족 주주의 힘찬 투쟁이 있어야 한다. 《우리 민족끼리》 원칙에서 북남관계문제를 자주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우리 민족끼리》리념에 충실할 때 화해와 단합도, 겨레의 념원인 통일과 번영도 실현할수 있다.

새해공동사실에서 제시된바와 같이 력사적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에 기초하여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국통일의 앞길을 열어 나가려는 우리의 립장은 확고부

동하다.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적극 실현해야 한다.

북과 남의 화해와 협력은 민족의 협력을 있고 단합을 도모하며 자주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화해와 협력의 실현이자 곧 북남공동선언의 리행이다.

북과 남은 민족공동의 리익을 첫 자리에 놓고 화해를 도모하며 각계층의 대량과 접촉을 통하여 협박압박을 적극 추동해나가야 한다. 북남관계는 당국의 독점물이 될수 없으며 진정으로 북남관계개선의 자주통일을 바라다면 화해와 협력사업에 부당한 조건과 구실을 걸고 해방을 놓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대화와 협력사업은 마땅히 민족적화해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통일번영에 실질적으로 이바지되게 하여야 한다. 그러자면 남조선에서 민족의 공리공영을 위한 사업을 저해하는 온갖 법적, 제도적장벽을 철폐되어야 하며 광범한 인민들의 자유로운 통일론의와 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

온 민족의 단합은 조국통일의 결정적담보이다.

단결은 힘이며 승리의 열쇠이다. 북과 남, 해외의 정당, 단체들과 각계층 인민들은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밑에 단련협합을 강화하여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추동하고 조국통일운동을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공동사실에서 제시된바와 같이 해외의 온 겨레는 6.15 공동선언 발표 10돐과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제시 30돐을 맞으며 화해와 협력, 단합의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켜나가야 한다. 조선사람 수를 막론하고 의외의 지배와 간섭을 배격하며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전환적국면

을 열어나가기 위해 힘차게 투쟁하여야 한다.

민족대단결의 위력은 북남관계개선을 한사코 방해하며 대결전쟁책동을 추구하는 내외분별주의세력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높이 발휘되어야 한다. 안팎의 분별주의세력의 악랄한 반통일책동을 짓부시기 위한 견결한 투쟁으로써만 겨레의 속нын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앞당길수 있다.

현실은 남조선에서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투쟁의 불길게 세계를 지펴올릴것을 요구하고있다. 내외 호전세력들의 대결전쟁책동을 그대로 방임해둔다면 제난을 당할것은 우리 민족밖에 없다.

남조선인민들은 외세가 없는 통일 인민의 세상을 위해 자주통일의 기치, 반전평화의 기발을 높이 들고 나가야 한다. 6.15 통일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내외호전세력들의 군주도발과 무력중간, 전쟁책동을 규탄하고 철저히 짓부셔 버려야 한다. 무모한 반공화국책소동의 음흉한 기도를 단호히 꺾어 버리고 전쟁의 근원인 미군을 남조선에서 철수시키기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여나가야 한다.

우리 겨레가 굳게 단결하여 투쟁할 때만이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 아침이 앞당겨진다. 해외의 온 겨레가 새 세기 자주통일의 표제인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따라 신심뜨듯이 나아가 갈 때 조국통일의 그날은 반드시 오고야말것이다.

전체 조선민족은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밑에 하나로 굳게 뭉쳐 반통일세력의 온갖 도전을 물리치며 거족적인 통일대행진을 다스쳐나갈수 있는 2010년을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 가는 전한의 해로 빛나게 장식하여야 한다. **최 철 순**

우리는 **통일의 기적소리 높이 울리리** 기관차들을 질풍같이 몰아가는 우리 경도수송 전사들도모가 가다듬고있는 역센 신념이다.

우리는 강성대국건설뿐 아니라 조국통일위업도 우리가 맡아 수행해나갈 수 있는 민족적임무로 한창 서고 있다.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애국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여나갈것이다. 하여 북과 남을 잇는 통일철도를 환회애 넘쳐나고 있는 기적소리를 높이 울리며 질풍같이 내달릴 그 날을 기어이 앞당겨 오겠다. **철도수송 부국장 김 삼 천**

우리는 **통일의 기적소리 높이 울리리** 기관차들을 질풍같이 몰아가는 우리 경도수송 전사들도모가 가다듬고있는 역센 신념이다.

우리는 강성대국건설뿐 아니라 조국통일위업도 우리가 맡아 수행해나갈 수 있는 민족적임무로 한창 서고 있다.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애국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여나갈것이다. 하여 북과 남을 잇는 통일철도를 환회애 넘쳐나고 있는 기적소리를 높이 울리며 질풍같이 내달릴 그 날을 기어이 앞당겨 오겠다. **철도수송 부국장 김 삼 천**

우리는 **통일의 기적소리 높이 울리리** 기관차들을 질풍같이 몰아가는 우리 경도수송 전사들도모가 가다듬고있는 역센 신념이다.

우리는 강성대국건설뿐 아니라 조국통일위업도 우리가 맡아 수행해나갈 수 있는 민족적임무로 한창 서고 있다.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애국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여나갈것이다. 하여 북과 남을 잇는 통일철도를 환회애 넘쳐나고 있는 기적소리를 높이 울리며 질풍같이 내달릴 그 날을 기어이 앞당겨 오겠다. **철도수송 부국장 김 삼 천**

우리는 **통일의 기적소리 높이 울리리** 기관차들을 질풍같이 몰아가는 우리 경도수송 전사들도모가 가다듬고있는 역센 신념이다.

우리는 강성대국건설뿐 아니라 조국통일위업도 우리가 맡아 수행해나갈 수 있는 민족적임무로 한창 서고 있다.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애국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여나갈것이다. 하여 북과 남을 잇는 통일철도를 환회애 넘쳐나고 있는 기적소리를 높이 울리며 질풍같이 내달릴 그 날을 기어이 앞당겨 오겠다. **철도수송 부국장 김 삼 천**

우리는 **통일의 기적소리 높이 울리리** 기관차들을 질풍같이 몰아가는 우리 경도수송 전사들도모가 가다듬고있는 역센 신념이다.

우리는 강성대국건설뿐 아니라 조국통일위업도 우리가 맡아 수행해나갈 수 있는 민족적임무로 한창 서고 있다.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애국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여나갈것이다. 하여 북과 남을 잇는 통일철도를 환회애 넘쳐나고 있는 기적소리를 높이 울리며 질풍같이 내달릴 그 날을 기어이 앞당겨 오겠다. **철도수송 부국장 김 삼 천**

우리는 **통일의 기적소리 높이 울리리** 기관차들을 질풍같이 몰아가는 우리 경도수송 전사들도모가 가다듬고있는 역센 신념이다.

우리는 강성대국건설뿐 아니라 조국통일위업도 우리가 맡아 수행해나갈 수 있는 민족적임무로 한창 서고 있다.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애국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여나갈것이다. 하여 북과 남을 잇는 통일철도를 환회애 넘쳐나고 있는 기적소리를 높이 울리며 질풍같이 내달릴 그 날을 기어이 앞당겨 오겠다. **철도수송 부국장 김 삼 천**

우리는 **통일의 기적소리 높이 울리리** 기관차들을 질풍같이 몰아가는 우리 경도수송 전사들도모가 가다듬고있는 역센 신념이다.

우리는 강성대국건설뿐 아니라 조국통일위업도 우리가 맡아 수행해나갈 수 있는 민족적임무로 한창 서고 있다.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애국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여나갈것이다. 하여 북과 남을 잇는 통일철도를 환회애 넘쳐나고 있는 기적소리를 높이 울리며 질풍같이 내달릴 그 날을 기어이 앞당겨 오겠다. **철도수송 부국장 김 삼 천**

최근 남조선에서 《MBC》 방송 사장을 비롯한 《방송의 경영관계자 8명》이 《방송 문화진흥회》 리사장에 일체 사표를 제출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한개 방송회사의 사장을 비롯한 경영관계자의 다수성원들이 사퇴하는 것과 같은 이런 현상은 일찌기 있어 본적이 없는것이라고 한다.

남조선계는 이 사태가 공정한 언론의 기능을 미비시키고 언론을 저落的 수준에 장악하기 위한 당국의 비렬한 음모의 결과라고 한 소견이 우세하다. 충분히 근거가 있는 주장이다.

남조선당국이 추종하는 우익보수파자들이 구성된 《방송 문화진흥회》는 지금껏 《MBC》방송을 어용화하기 위해 음모양모로 책동해왔다. 이 단체의 리사장과 그의 측근들은 당국을 등지고 《MBC》방송의 경영, 편집 등 내부문제에 사사건건 간섭하고 트집을 걸며 갖은 횡포를 부렸다. 나중에는 사장에 자기 사퇴할것을 강박하면서 저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경영관계자들을 교체하려고 로골적으로 날뛰었다. 갈수록 대저는 위협과 압박에 견디다 못해 사장을 비롯한 경영관계자들이 결국 사표를 내지 않았던 안이게 되었다.

사실 《MBC》방송장악을 위한 남조선당국의 책동은 어제오늘에 비로소 시작된것이 아니며 미천부터 체계적으로 감행되어왔다.

남조선파괴당국은 《MBC》방송의 《PD수첩》 제작자들이

우리는 **통일의 기적소리 높이 울리리** 기관차들을 질풍같이 몰아가는 우리 경도수송 전사들도모가 가다듬고있는 역센 신념이다.

우리는 강성대국건설뿐 아니라 조국통일위업도 우리가 맡아 수행해나갈 수 있는 민족적임무로 한창 서고 있다.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애국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여나갈것이다. 하여 북과 남을 잇는 통일철도를 환회애 넘쳐나고 있는 기적소리를 높이 울리며 질풍같이 내달릴 그 날을 기어이 앞당겨 오겠다. **철도수송 부국장 김 삼 천**

우리는 **통일의 기적소리 높이 울리리** 기관차들을 질풍같이 몰아가는 우리 경도수송 전사들도모가 가다듬고있는 역센 신념이다.

우리는 강성대국건설뿐 아니라 조국통일위업도 우리가 맡아 수행해나갈 수 있는 민족적임무로 한창 서고 있다.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애국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여나갈것이다. 하여 북과 남을 잇는 통일철도를 환회애 넘쳐나고 있는 기적소리를 높이 울리며 질풍같이 내달릴 그 날을 기어이 앞당겨 오겠다. **철도수송 부국장 김 삼 천**

우리는 **통일의 기적소리 높이 울리리** 기관차들을 질풍같이 몰아가는 우리 경도수송 전사들도모가 가다듬고있는 역센 신념이다.

우리는 강성대국건설뿐 아니라 조국통일위업도 우리가 맡아 수행해나갈 수 있는 민족적임무로 한창 서고 있다.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애국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여나갈것이다. 하여 북과 남을 잇는 통일철도를 환회애 넘쳐나고 있는 기적소리를 높이 울리며 질풍같이 내달릴 그 날을 기어이 앞당겨 오겠다. **철도수송 부국장 김 삼 천**

우리는 **통일의 기적소리 높이 울리리** 기관차들을 질풍같이 몰아가는 우리 경도수송 전사들도모가 가다듬고있는 역센 신념이다.

우리는 강성대국건설뿐 아니라 조국통일위업도 우리가 맡아 수행해나갈 수 있는 민족적임무로 한창 서고 있다.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애국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여나갈것이다. 하여 북과 남을 잇는 통일철도를 환회애 넘쳐나고 있는 기적소리를 높이 울리며 질풍같이 내달릴 그 날을 기어이 앞당겨 오겠다. **철도수송 부국장 김 삼 천**

우리는 **통일의 기적소리 높이 울리리** 기관차들을 질풍같이 몰아가는 우리 경도수송 전사들도모가 가다듬고있는 역센 신념이다.

우리는 강성대국건설뿐 아니라 조국통일위업도 우리가 맡아 수행해나갈 수 있는 민족적임무로 한창 서고 있다.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애국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여나갈것이다. 하여 북과 남을 잇는 통일철도를 환회애 넘쳐나고 있는 기적소리를 높이 울리며 질풍같이 내달릴 그 날을 기어이 앞당겨 오겠다. **철도수송 부국장 김 삼 천**

우리는 **통일의 기적소리 높이 울리리** 기관차들을 질풍같이 몰아가는 우리 경도수송 전사들도모가 가다듬고있는 역센 신념이다.

우리는 강성대국건설뿐 아니라 조국통일위업도 우리가 맡아 수행해나갈 수 있는 민족적임무로 한창 서고 있다.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애국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여나갈것이다. 하여 북과 남을 잇는 통일철도를 환회애 넘쳐나고 있는 기적소리를 높이 울리며 질풍같이 내달릴 그 날을 기어이 앞당겨 오겠다. **철도수송 부국장 김 삼 천**

